

[제11차 회원정기총회 회의자료]

- 일시: 2025년 2월 8일 토요일 13:00
- 장소: 음성군 금왕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음성노동인권센터

식순

<1부> 음성노동인권센터 10주년 기념식

- 대표 인사
- 축하 공연
 - 1. 바이올린 & 첼로 협주 (조광복 공인노무사/前 상임활동가,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2. 기타 연주 (송슬기 회원)
- 축사
- 운영위원, 집행위원, 활동가 인사
- 10년 활동 영상
- 10년 뿌리회원 기념품 증정식
- 떡 케이크 커팅식 & 단체 사진

- 휴식 -

<2부> 제11차 회원정기총회

- 개회 선언
- 성원 보고 및 회순 통과
- 감사 보고
- 활동 및 결산 보고
 - 1. 2024년 결산 보고 / 최정희 집행위원
 - 2. 2024년 활동 보고 및 평가 / 박윤준 상담실장
 - 3. 10년 활동 보고 / 박윤준 상담실장
- 논의 안건
 - 1. 2025년 활동 계획안
 - 2. 2025년 예산안
- 모둠 토론: 2030년,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음성 지역사회 비전 함께

그리기 · 폐회 선언

- 감사보고서 7쪽
- 2024년 활동 보고 및 평가8쪽
 - 가. 상담, 법률 및 조정 지원 활동9쪽
 - 나. 공론화 활동15쪽
 - 다. 교육, 회원 및 문화 활동23쪽
 - 라. 연대 활동27쪽
 - 마. 공모사업37쪽
 - 바. 내부 운영39쪽
 - 사. 대외 활동46쪽
- 2024년 결산 보고48쪽
- 10년 활동 보고(2015~2024)52쪽
 - 가. 개소부터 지금까지53쪽
 - 나. 부문별 활동 돌아보기55쪽
 - 다. 10년 주요활동 10選64쪽
- 논의안건73쪽
 - 안건 상정의 배경74쪽
 - 안건1. 2025년 활동계획(안)75쪽
 - 안건2. 2025년 예산(안)76쪽
- 2030년,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음성 지역사회의 비전 함께 그리기78쪽 · 정관79쪽

감사보고서

- 감사일시 : 2025년 1월 24일 18시
- 장 소 : 읍성노동인권센터 사무실
- 피감시자 : 박윤준 상담실장, 천윤미 홍보차장, 박성우 상임활동가

센터 정관에 따라 결산서, 총계정원장, 월계표 등을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서류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현금 잔액은 은행 발급 거래내역서와 통장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견 없음.

2025년 1월 24일

읍성노동인권센터 감사 윤희준 
감사 이병남 (인장) 

가. 상담, 법률 및 조정 지원 활동

- ❖ 월, 화, 목, 금 10:00~17:00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활동을 벌였고, 사안에 따라 주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 상담, 법률 및 조정 지원활동 통계

a. 월별 상담내역 집계표

월별		근	해	모성 보호	근 로	산 업	고 용	노 사	직장 내	비 정규	기 타	합계
----	--	---	---	----------	--------	--------	--------	--------	---------	---------	--------	----

		로 시 간		고 인 사	및여 성	계 약	안 전	보 협	관 계	괴롭 힘	직		
1월	2			2		1		2		3		1	11
2월													
3월	2			4				1		1			8
4월	4			1		2		2		1			10
5월	3	1		1				1					6
6월	9			2			1			1		3	16
7월	27			7	1	4	1	3		2	5	10	60
8월	20	1	1	12		3	2	6		7	2	1	55
9월	6			2	2		1	1		2		12	26
10월	13			1			1					17	32
11월	10			3			2					1	16
12월	5			2			2	1		1			11
총계	101	2	1	37	3	10	10	18	0	18	7	45	252
비율(%)	40.0	0.8	0.4	14.7	1.2	4.0	4.0	7.1	0.0	7.1	2.8	17.9	100.0

b. 세부주제별 상담내역 집계표

임금 / 101건 (40.0%)							근로시간 / 2 건 (0.8%)		
임금체불		주 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기타	휴게	휴일	근로시간
49	2	6	11	22	3	8	1	0	1
휴가 / 1건 (0.4%)				징계, 해고 / 37건 (14.7%)			모성보호 및 여성 / 3건 (1.2%)		
휴가 휴업 휴직 0 1 0				34 1			사이동 출산, 육아 성화 근로계약 3 0		
산업안전, 산업재해 / 10건 (4%)		고용보험 등/ 18 (7.1%)	노동조합 / 0건 (0%)						
산업안전								등 단체교섭	기타

0	10	18	0	0	0	0	0	0	0
---	----	----	---	---	---	---	---	---	---

직장내괴롭힘 /

비정규직 / 7건 (2.8%) 기타 / 45건 (18%) 총계 직장내괴롭힘 계약직 단시간 파견 특수고용 기타
18건 (7.1%)
신고절차 노사협의회 기타 18 3 0 4 0 0 10 0 35 252

9

c. 법률지원 활동 집계표

진정서, 고소/고발장, 근로감독청원서 및 이유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 및 재해발생경위서, 의견서 작성, 민사소송 소장 및 준비서면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한 내역을 집계한 표입니다.

번호	이름	사건	사업장	접수(시행) 일자	접수기관	마감일
1	변00	소송비용액확정 의견서(민변)		24.1.	일 2	
	2 이00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충북***** ** **협회	2024. 1.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시 2
	3 김00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주)*****	2024. 1.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시 2
	4 김00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리		20 시		
	5 강00	근로계약서 변경 협의 내용증명	사회복지법 인 ****	2024. 1	사업장	

	19 인00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식품(주)		노동위 화해		2024.5.
	20 김00	산재요양급여신청서 및 재해발생경위서	(주)*****	2024. 4.	근로복지공단 총 주지사		
		체불임금 산정서	**건설	2024. 4.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자 2	
	22 김00	체불임금 진정서	**포장	2024. 4	고용노동부성 남 지청	자 2	
	23 김00	체불임금 진정서	**건설	2024. 4	고용노동		

10

호 이름	사건	사업장	접수(시행) 일자	접수기관		파 종료일
				지청		
24 임00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근로감독청원	****	2024. 4.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시 2	
25 김00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문 의견서	충청북도		도인권센터	종결	
26 김00	직장 내 괴롭힘 및 휴직 협의 내용증명	(주)*****	20 4			
27 김00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	합 2	
28 임00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인력		노동위 화해		2024.5.
29 이00	산재요양급여신청서 및 재해발생경위서	(주)**환경	2024. 5.	근로복지공단 총 주지사	승인	2024.6.
30 권00	체불임금 산정서	**푸드	2024. 5.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자 2	
31 우0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2024. 5.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3 2 La* *** *	체불임금 산정서	***	2024. 5			
33 전00	체불임금 진정서	***	2024. 6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자 2	
34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사회복지법				2024.9.

	강00		인 ****		노동위 인정		
	35 양00	해고무효확인소송 준비서면	****		서울고등법원	승소	2024.9.
	36 0 00	체불임금 산정서	***치킨	2024.6.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지 2	
	37 지00	체불임금 산정서	*****	2024.6.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지 2	
	G***	임금청구소송 신청	**인력	2024.6.	법률구조 공단 충주지사	이행 권고 결정	2024.8.
	39 정00	부당해고 이유서	****고		충북지방노		2024.8
	40 김00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건설	2024.6	근로복지공 단 성남지사	지 2	
	41 강00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 신청서 및 이유서	사회복지법 인 ****		중앙노동위	화해	2024.9.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건설 주식회사		노동위 화해		2024.8.
	43 0 00	부당해고 무효확인 항소 연계(민변)	주식회사 *****	2024.7.	서울북부지방 법원		
	44 노00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	2024.7.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지 2	
	45 한00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주)**환 경	2024.7.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진 2	
4 6	염** 외 1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사업자	2024.7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47 윤00	임금체불 진정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	**서브	2024.7	고용노동부평 택 지청	지급완 료 및 진정서	2024.8

호	이름	사건	사업장	접수(시행) 일자	접수기관	파	종료일
						취하	
	48 김00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사업자	2024.8.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49 김00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	개인사업자	2024. 8.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농가	2024. 8.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지 2	
	51 정0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2024. 8.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로 .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농가	2024. 8.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53 김00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사업자	2024. 8.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지 2	
	54 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서브	2024. 8	근로복지공단 총 주지청	승인	2024.9
	55 손00	임금체불 진정서	**푸드	2024. 9.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로 .	
	G***	대지급금 신청	**인력	2024. 9.	근로복지공 단 총주지사	지 2	
	57 정00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진정서	(주)****	2024.1 0.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하 .	
	58 전00	임금체불 진정서 및 체불임금산정서	***푸드	2024.1 0.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로 .	
		임금체불 진정서	개인농가	2024.1 0.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6 0	수0 000 0	임금체불 진정서	(주)*****	2024.1 0.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61 정00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주)****		노동위 화해		2024.1 0.
6 2	아0 0 외3 명	체불임금 산정서	*****	2024.1 0.	고용노동부총 주 지청	로 .	
	63 나00	임금체불 진정서 및 체불임금 산정서	(주) ****	2024.1 1.	고용노동부청 주 지청		

d. 조정지원 활동 집계표

사업주 또는 관계인과의 조정을 통해 권리 구제한 내역을 집계한 표입니다.

번호	이름	사건	사업장	일자	조정수단
1	김00	직장내괴롭힘 및 구직급여	***	2024.1	사업주 통화
2	인00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식품(주)	2024.4.	공문 발송
3	정00	부당해고	****고등학교	2024.5	사업주 통화
4	이00	임금체불	*****탕	2024.5.	사업주통
5	이00	임금체불	***치킨	2024.6	화 사업주
6	김00, 최00		***푸드	2024.6	통화 사업주 통화
7	익명	임금체불	사업장 미상(건설업)	2024.6	사업주 통화

12

8	지00	임금체불	*****	2024.7	사업주 통화
9	김00	임금체불	개인 사업주	2024.7	사업주 통화
10	김00	부당해고	****개발	2024.8	사업주 통화
11	이00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개인사업자	2024.8	사업주 통화 및 의견서 발송
12	김00	임금체불	*****	2024.8	사업주 통화
13	김00	부당해고	****아파트	2024.9	사업주 통화
14	씨0, 마000		*****	2024.9	사업주 통화
15	케0	임금체불	****휴게소****	2024.11	사업주 통화

e. 주요 통계 현황 및 특징

- 2024년 총 252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지원 63건, 조정지원 15건을 하였습니다.
- 상담형태는 내방 50%, 전화 36.4%, 출장 12.3%, 인터넷 0.7%, 기타 0.7%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방문하게 된 동기로서는 ‘소개’가 44.2%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8.4 %, 인터넷 6.5%, 기타 1.2%, 전화안내(114) 1.3%로 나타났습니다.
- 상담분야별로 살펴보면, 임금 관련 상담이 40.0%로 가장 높고, 기타 17.9%, 해고/인사 14.7%, 고용보험,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7.1%, 근로계약, 산업안전이 각각 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상담은 주로 신고 절차와

관련된 문의가 많았습니다.

■ 상담주체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96.75%이고, 단체가 0.7%, 노동조합이 0.7%, 사업주가 1.2%로 집계되었습니다.
2. 남성이 47.4%, 여성이 49.4%, 무응답이 3.3%로 나타났습니다.
3. 60대 이상이 24.7%로 가장 많았고, 50대 20.8%, 40대 18.2%, 30대 14.3%, 20대 9.7%, 무응답 12.34%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선주민(내국인)이 73.4%, 이주민(외국인)이 26.6%로 나타났습니다.
5.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있다고 밝힌 내담자는 2.6%, 없다고 밝힌 내담자는 61%였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힌 내담자는 1.95%였습니다.
6. 비정규직 노동자가 44.9%, 정규직이 34%, 무응답 21.2%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세부적인 형태로 구분하면, 기간제 25.6%, (건설)일용직 8.3%, 파견(용역) 5.1%, 무기계약 2.7%, 기타 3.2%로 집계되었습니다.

13

7.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 33.1%, 사무 9.1%, 서비스/운송 7.8%, 제조/기능 5.2%, 관리 3.9%, 장치/기계조직, 판매/영업 각각 1.3%, 농림어업 0.7%로 나타났습니다.

■ 내담자의 사업장 특성과 관련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로는 제조업 20%, 숙박/음식점업 11.7%, 운수업 7.8%, 건설업 6.5%, 사업시설관리 5.8%, 농림어업 5.2%, 협회/단체/개인서비스 5.2%,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9%, 교육서비스 3.3%, 예술/스포츠/여가 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 공공행정 2%, 도소매업 1.3%, 폐기물/원료재생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기타 13%, 금속/기계 3.9%, 식품 3.3%, 화학/섬유 2% 분포를 보였습니다.
2.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12.8%, 30~100인 33.6%, 100인 이상 3.2%이고 무응답이 48%였습니다.

■ 2024년 상담 통계에서 확인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년과 비슷하게 임금체불, 해고/인사, 고용보험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상담이 조금 더 많고, 연령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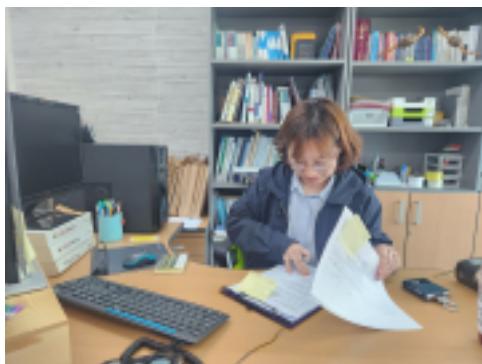
높을수록 센터에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노조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로 센터를 찾았습니다.

2. 두드러진 변화는 이주민 상담이 전체 26.6%로 크게 늘어난 점입니다.

(참고) 지난 5년 이주민 상담 비율: 2019년 7.9%, 2020년 5.2%,
2021년 2.7%, 2022년 11.8, 2023년 6.4%

2. 김선애 공인노무사 상담 지원

- 센터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애 공인노무사의 제안으로 4/26(금), 9/9(월) 2회 상담 지원이 있었습니다.



상담일지 정리하는 김선애 노무사

14

3. 상담 활동 평가

2024년 상담활동에 대한 상근활동가들의 평가입니다.

○ 박윤준

- 이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 법률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만나 뵙지 못했던 계절근로자, 난민, 미등록이주민들의 임금체불, 해고 사건을 접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 2024년 6월부터 박성우 님이 상임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2달 간의 수습, 교육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에 착수함에 따라 활동가 3인이 상담, 법률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선애 님이 센터에 무료 노동 상담 지원을 제안해주신 덕분에 더욱 활발한 상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 상담, 법률 지원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내에서 상담, 법률 지원 내역들을 그때 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담 사례들을 가공하여 공유하면 어떨까요? <월간노동상담> 카드뉴스 제작을 천윤미 홍보차장님의 일임하고 계시는데 활동가들이 분담하여 상담사례들을 축적하고, 추후에 상담 부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 천윤미

- 내담자들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고 개인사업자 혹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령이 높을 수록, 선주민이 아닐수록 사건 설명에 대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료는 노동법을 설명하는 자료도 있겠지만 해결 절차나 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들을 센터에서 보관하고 내담자에게 설명할 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회 이상 동일 사업장, 동일 주제로 상담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박성우

- 이주민 노동자들의 경우 언어의 다름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상담에서 필요할 시 상시적으로 통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한달 혹은 두달에 한 번씩이라도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 처음 활동을 시작한 초보 활동가로서 노동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해 부끄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활동가의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관련 상황별, 사안별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 공론화 활동

❖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와 센터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였고, 현수막 캠페인, 피켓팅을 비롯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론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1. [기획] 이주민 인터뷰 및 노동인권 소책자 출간

a. 이주민 인터뷰

- 일터에서와 삶에서의 지역 이주민의 경험을 듣고 정리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진행.
- 사전 집담회에서 인터뷰의 방향을 점검.
- 통번역사, 이주민 커뮤니티, 지인 등을 통해 인터뷰이 섭외, 9~10월 기간 인터뷰 진행. ■
- 본국에서의 생활, 이주의 동기, 한국 일터,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인터뷰 ■
- 인터뷰 말미에 본국의 언어로 이주노동자로서 지역 사회에 원하는 바를 적고, 낭독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작업을 하였음. 추후에 영상으로 편집.

	'7이주노동자 인터뷰 준비를 위한 사전 집담회(결혼이주여성) / 카페 용담
	'9이주노동자 인터뷰 준비를 위한 사전 집담회(기획 강좌 참여 선주민) / 카페 용담
	'9이주노동자 인터뷰 / 금왕 카페
	'1이주노동자 인터뷰 / 대소 카페
	'3이주노동자 인터뷰 / 인권센터
	'2이주노동자 인터뷰 / 인권센터
	'3이주노동자 인터뷰 /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2이주노동자 인터뷰 / 금왕 카페
	'2이주노동자 인터뷰 / 인권센터
	'6이주노동자 인터뷰 /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3이주노동자 인터뷰 / 금왕 카페

b. 노동인권소책자

- 이주노동자 심층 인터뷰 내용과 이주민 통계 자료를 정리한 소책자를 후원행사일 10월 26일에 맞추어 발간, 배포.
- 박성우, 박윤준, 천윤미 세 활동가가 집필에 참여.



세번째 노동인권소책자

표지 이주노동자와 인터뷰하는 박성우 활동가

2. 캠페인 / 피켓팅

a. [기획]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 3/13 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알리는 현수막 음성지역 고교(반도체고, 매괴고, 대금고, 음성고, 동성고, 서전고) 앞 게시
- 나유정, 이재정, 임효정 회원 참여

b. 코스메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촉구 피켓팅

- 운영위원, 집행위원, 회원 및 노동조합 참여

5/22~6/5	코스메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촉구 출근길 피켓팅 /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앞
5/22~6/5	카드뉴스 / 코스메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촉구 출근길 피켓팅



고교 담벼락에 현수막 달고 있는 나유정 회원



코스메카코리아 출근길 피켓팅 17

3. 기자회견, 성명서, 보도자료 발표

인권센터가 대응하고 있는 사안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4/18음성, 청주, 호죽노동인권센터 공동성명,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가 일터에 안전하게 복귀하는 상을 원한다 – 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5/2성명, 일용직, 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양산하는 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1코스메카코리아-코스위드원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앞
4취재요청서 / 건국우유 불법파견 사업주 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5건국우유 불법파견 사업주 기소의견 송치 촉구 기자회견 / 충주노동청 앞
0성명 발표 / 한국교육개발원은 집단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 이행하라!

4. 방송, 라디오

박윤준 실장이 격주로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코너에 출연, 지역, 전국 노동인권 이슈 다룬.

	디오 인터뷰,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음성군 노동실태 발표 / 오늘의 시선
	디오 인터뷰, 경실련 성희룡 피해자 부당해고 및 2차 가해 재판 투쟁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청원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노동법원과 노동약자보호법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코스메카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 촉구 피켓팅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 참가단 발족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 공정사회
4MBC충북	녹화 방송, 생활임금 조례 / 시사토론 창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5인 미만 사업장과 임금체불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여기서 살기위해 우리가 기후정의, 928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 /
	라디오 인터뷰, 급식실 조리사 건강권 개선 대책, 고 이영미님 사망 사건 / 공정사회
	라디오 인터뷰, 우리 지역 이주노동자 이야기 / 공정사회

		라디오 인터뷰,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음성환경 사업주 징역 4년구속 / 공정사회
		디오 인터뷰,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 공정사회

18

1		디오 인터뷰, 12.3 내란 사태로 되돌아보는 노동기본권 유린 흑역사 / 공정사회
		라디오 인터뷰,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 공정사회

5. 매체 기고

	5/22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읽기모임을 시작하며 / 질라라비 6월호
	6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파업 참가기] 발전HPS지부 파업을 보며 정의로운 전환을 꿈꾼다 / 이짓 뉴스레터 창간호
	6음성타임즈	우리가 음성군의회에 항의 행동을 한 이유
		노동단체네트워크 불법파견의 또 다른 고리 끊기 위해 음성과 서울이 만났다 / 비정규노동9,10월호
	8/19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투쟁의 시작 / 일터
	6금속노조	이주하는 노동, 이주하지 못하는 권리 / 금속노조 소식지
	2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좌담-잇기] 거대해 보이는 기후위기,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실마리가 있다 / 이짓 뉴스레터
	4음성타임즈	“탄핵, 탄핵”…충북혁신도시 광장, 尹 탄핵시위 · 응원봉 뮤헐

6. 온라인 활동

a. 티스토리 홈페이지: www.esnodong.or.kr 누적 접속자 3만5천명

b.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685명

c. 네이버 뱅드: 멤버 55명

d. 센터 소식지: 홈페이지에 봄, 여름 호 발행.

e. 월간노동상담 카드뉴스

1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월: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4월: 4월 14일이 새해인 나라가 있다고?

5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7월: 그만둔다니까 사장님의 위약금을 내래요.

8월: 3.3%공제하면 구직급여 신청 못하나요?

f. 충북혁신맘카페 제휴 업체로 등록되어 다양한 센터 소식을 공유, 홍보하고 있음. 아래는 게시글 목록.

1/11	[초대] 공동체영화 상영안내_어른 김장하
	0[월간노동상담-1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1[알림] 2월 겨울휴무 알림
	'2환영!!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2/29[월간노동상담-2월]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19

	1[초대] 음성 공동체영화 상영안내_<느티나무 아래>
	6[월간노동상담_3월]잊지 않았습니다. 2014.04.16. 모여라! 2024.04.12
	1세월호 기억문화제에 초대합니다.
	2[월간노동상담-4월] 4월 14일이 새해인 나라가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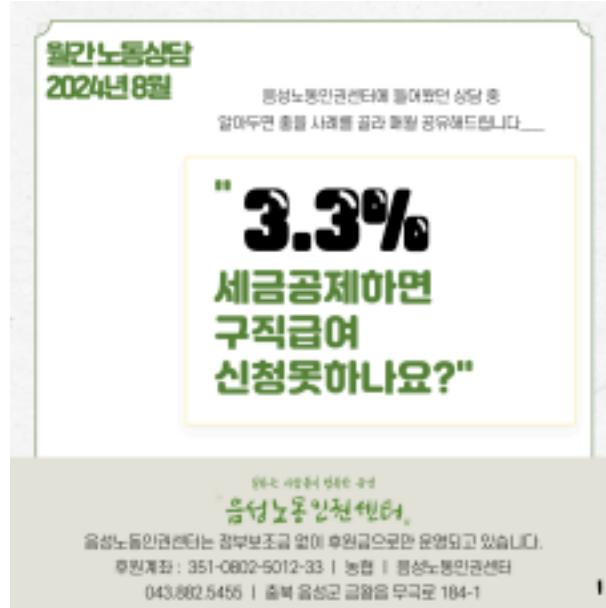
	7<청개구리 독서모임 회원모집>
	8<<음성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상담 신청자 모집>>
	4음성노동인권센터 소모임 및 노무사 상담일정안내
	6<<음성노동인권센터 5.1 노동절 참가회원모집>>
	0노동절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7<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모집 및 교육>
	7[월간노동상담-5월]직장내괴롭힘신고자는현장으로돌아갈수있을까?
	8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 참가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기획강좌] 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
	8[강좌]직장내괴롭힘,제대로알고대응하자!
	'2기획강좌1강'이주노동자의노동인권실태'재밌게진행했습니다^^
	8왜!!!음성군의회는생활임금조례제정을미루고있을까?
	0노동인권의눈으로이주민의삶바라보기2강,후기입니다.
	1[강좌]직장내괴롭힘,제대로알고대응하자!(7/18)
	2[후기]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 가을에 다시 만나요.
	7음성노동인권센터, 지역사회 불법파견 없애기 위해 건국우유공동행동 출범
	87.18 일터 괴롭힘 노동법 강좌 우천 취소 안내
	0[기획강좌]내가낸세금,다어디로갔을까?
	1[월간노동상담-7월] 그만둔다니까 사장님이 위약금을 내래요.
	3[기자회견] "음성에서부터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하겠다"
	0음성군 예산 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예산 감시 강좌> 신청하세요!!
	7[알림]9.9공인노무사무료상담신청하세요.
	4[월간노동상담-8월] 3.3%공제하면 구직급여 신청 못하나요?
	4<후원행사에초대합니다!>
	3[노래동영상]우리는모두사랑하는사람을위해일을합니다
	9후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7음성노동인권센터소책자배포신청받습니다
	2<서명참여>음성에도무료근로자건강센터를만듭시다!!
	6[초대]11월마지막밤,북콘서트로오세요!

	'3<무료상영>12월5일저녁7시'침몰10년,제로썸'
	'7퇴진 촛불문화제가 금요일에 혁신도시에서 열립니다!!!!
	'9이번주 촛불행동 일정 공유합니다
	012월13일촛불들고만납시다!!
	3비가와도눈이와도오늘은촛불!!
	6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퍼스트레이디 음성 상영합니다
	7 [2024년 음성노동인권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820일 우리의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20

1	0바로 오늘!! 마지막 촛불집회!!
	6<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 월간노동상담 카드뉴스 표지

7. 언론 기사 작성 / 보도

-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우 활동가가 센터 활동과 이슈들을 취재, 보도하였음.

	7<바람의 세월> 공동체 상영회 기사 보도
	1코스메카코리아 기자회견 기사 보도
	7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활동 공유회 기사 보도
	1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 보도
7/18	음성군의회 생활임금조례 폐기 기사 보도
7/18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사 보도
	3건국우유 근로감독 기자회견 기사 보도
	8설성문화제 기후 부스 개최 기사 보도
	4탄핵 촉구 촛불집회 기사 보도
	4음성군의회 규탄 및 고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 기사 보도

8. 공론화 활동 평가

○ 박윤준

-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론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 코너에 출연하여 정기적으로 지역 노동인권 이슈를 다룬 점은 큰 성과입니다.
- 2024년 활동 슬로건 “우리 지역 숨겨진 노동자와 연대하기”에 맞게 지역의 이주노동자, 의료, 돌봄 분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번째 노동인권소책자를 ‘지역 이주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발간한 일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인터뷰, 소책자 제작 과정에서 인권센터의 활동이 이주민 사회, 이주민 인권 활동가 및 연구자 그룹 등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별도로 소책자 신청을 받아 전국 각지에 배부하였습니다. 사회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기도 하고, 옥천공동체라디오에서 소책자를 소개하는 등 주변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현수막 캠페인을 회원 참여형으로 기획한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3월, 7월, 12월 3차례 하기로 하였는데 1회 실행에 그친 점은 아쉽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활동 추진 계획을 검토할 때 연간 계획표를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교안 연구, 청소년 노동인권 강좌 개최, 회원들과 함께하는 “5:45 퇴근길 캠페인” 등을 야심차게 계획하였는데 여력이 되지 못해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활동 여건과 역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랜드 등 온라인 공간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운영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활동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홈페이지에 집중하고 좀 더 내실있게 관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노동인권센터 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어갈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다시 조정하고, 가능하다면 디자인 편집도 새롭게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박성우 활동가 덕분에 척박한 지역 언론 환경 속에서 센터 활동가 지역 이슈들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욕심을 좀 더 내보자면 센터에서 특정 주제로 기획 기사를 내보면 어떨까요?

○ 천윤미

- 생각보다 음성지역의 많은 분들이 음성노동인권센터를 모릅니다. 이를 대부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노동상담’을 검색해서 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 홈페이지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센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센터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재편할 필요성이 있고 이왕이면 회원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 들어와 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서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애정 가득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월간노동상담을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매달 주제를 선정하고 상담 내용과 관련 법들을 좀 더

쉽게 알리고 싶었는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간노동상담을 하면서 뿐듯한 점은 우리 지역에 센터를 홍보하는 채널로 맘카페에 제휴업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과 지역 맘카페 회원분들이 상담카드를 보고 센터로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상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연재를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 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투쟁소식이나 활동 소식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이나 피켓시위등을 알리는 선전물을 발빠르게 제작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 박성우

- 공론화 활동은 말 그대로 센터 활동이 좀 더 공론장에서 알려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음성 지역에서 간힌 채 그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센터가 나서서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의 노동인권소책자 발간을 통해 지역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에 알린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입니다.
- 티스토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의 경우 나름대로 공론화를 위해 운영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잖았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이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생각해야겠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루어낼 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태령 집회 이후 X(구 트위터)에서의 반응이 사회운동단체의 대규모 후원과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오마이뉴스에 제가 센터 관련 소식들을 보도하긴 했으나 센터의 활동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 기사 연재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가로 살기’와 같이 일상을 얘기하며 지역의 사안들을 녹여내는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며 동시에 센터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 센터 소식지를 가을, 겨울 호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예 하반기 통합본으로 근시일 내에라도 소식지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센터를 생소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센터와 센터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공론화 활동을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다. 교육, 회원 및 문화 활동



1. [기획 강좌] 노동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이주민의 삶

- 3회, 금왕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강좌 신청자 총 28명. 매 강좌 16~20명 참석.

7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 1강.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안건수)
4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 2강. 신자유주의와 노동 이주(서선영)
1노동인권의 눈으로 이주민의 삶 바라보기 3강. 이주노동자와 국제 연대(홍명교)

2. 5.1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 오전 10시 ‘나만의 피켓’ 만들기 / 인권센터
- 오후 2시 2024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참여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앞 광장
- 회원 9명 참석. 김윤혜, 박성우, 박윤아 후기 작성, 참석자에게 모자 증정



3. 청개구리 독서모임

- 회원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모임

24

- 충북혁신맘카페, 당근마켓, 현수막 등으로 홍보

- 가입 회원 12명, 7~8명 출석

7봄, 여름 도서 선정 / 인권센터
4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인권센터
9리어 해저드, <자궁 이야기> / 인권센터
6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 인권센터
1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금빛평생학습관
8장일호, <슬픔의 방문> / 금빛평생학습관
4가을, 겨울 도서 선정 및 회식 / 금빛평생학습관

	9일란 파페, <이스라엘에 대한 열가지 신화> / 금빛평생학습관
	3박상현, <친애하는 술츠씨> / 금빛평생학습관
	6조정래, <천년의 질문 1,2,3> / 금빛평생학습관



6월 26일 청개구리 독서모임 멤버들과 사진. 2024년 가을-겨울 선정 도서 포스터

4. 노동법, 노동인권 교육

- 외부 기관 요청에 따른 교육 실시

	3노동인권 첫걸음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2음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 괴산고등학교
	4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알아야할 노동인권 1강 / 자립센터 2이주노동자 노동인권 / 괴산 목도나루학교
	5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알아야할 노동인권 2강 / 자립센터 9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알아야할 노동인권 3강 / 자립센터

25

5. 노동인권소책자003 <내 이름은 이주민-지역 이주노동자 이야기> 북콘서트

- 11/30(토), 생극 도토리숲 작은도서관
- 박윤준 상담실장 기타/노래 공연, 이주민 인터뷰에 참여한 캄보디아 통번역사 강세나 회원, 러시아 이주민 아르템 패널로 초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플로어 질의 응답 후 마무리. -
- 이주민 관련 연구자, 노동조합 활동가, 이주민, 센터 회원 등 총 12명 참석.



북콘서트 마치고 참가자들과

6. 교육, 회원 및 문화활동 평가

○ 박윤준

- ‘노동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이주민의 삶’ 기획 강좌는 정부/지자체가 이주민 인구 유입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동시에 이주민에 대한 갖가지 혐오와 차별적인 인식이 팽배한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이주민과 연대하고자하는 선주민들과 이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하는 이주민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애초에 계획했던 봄나들이를 대신해서 세계노동절을 회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함께 인터내셔널가를 배우고, 피켓을 제작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노동자로서 연대의식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꼭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2022년부터 시작했던 “청개구리 독서모임”이 2024년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독서모임 홍보에 대한 모임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 노동법/노동인권 교육은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박윤준 상담실장이 강의안을 만들어 교육하는, 이른 바 ‘방어적’인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센터에서 집행위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하고, 강의 시연, 피드백 등을 거쳐 강의안을 만들고 교육 신청을 받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음성지역 노동인권의 과제’,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인권’, ‘좋은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노동법 기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등의 주제로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교육 신청을 받는 것이죠. 물론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하겠습니다.

- 노동인권소책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책자가 지역 사회 내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작년 북콘서트처럼 소책자를 소개하고, 읽기를 독려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지역학(地域學)’적 시도로서 지역 노동인권의 주제를 청소년들도 알기 쉽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노동 문제를 알고싶다면 이 책을 봐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보편적인 담론과 음성지역만의 특징과 이야기들이 균형있게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 박성우

- ‘노동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이주민의 삶’ 기획 강좌는 이주민이 많은 음성지역의 특성상 매우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 이주민들을 마주하면서도 낯설어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 강좌를 넘어서 주기적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아울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 없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음성군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음식점들을 탐방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개구리 독서모임은 활성화되어서 정말 보람찹니다. 하나의 책을 읽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책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책의 내용과 지역의 사안을 연결지어 얘기함으로써 평소에는 생각치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지역의 사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더욱 알려졌으면 합니다. 다만 그동안 모임에서 나눴던 얘기가 그 자리에서 휘발되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올해 모임부터는 독서모임에서 나온 얘기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동인권소책자가 발간되어 지금껏 알려지지 못한 지역 이주노동자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뿌듯합니다. 하나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책자를 널리 읽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터에 남아 있는 소책자들을 그저 보관하기보다 회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독후감대회를 진행하는 식으로라도 배포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또한 다음 노동인권소책자는 10주년에 나오는 만큼 좀 더 지역주민들이 읽는데 부담이 없고 센터를 알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던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음성군에서 일해온 이야기를 공유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천윤미

- 활동이 반복될 때면 기계적으로 상담하고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럴 때 센터 회원들과의 만남은 지친 마음을 환기시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고민될 때 센터 활동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회원들입니다. 때문에 함께 하는 사업들이 늘어날 때 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센터 활동에 회원들과의 활동이 더 많이 늘고 더더 많이 함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음성민중연대

-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군 농민회, 여성농민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충북지부 음성지회, 소극장하다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세월호 추모 주간 운영, 농활 연대, 촛불집회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음.

'5회의 / 장애인부모연대 – 세월호 10주기 행사 논의
'1세월호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음성군청
'9회의 / 장애인부모연대
2세월호 10주기 문화제 / 금왕성당
7음성군 농민회 농민학생연대활동 / 대소국민체육센터 체육관
'3회의 / 음성군 농민회 사무실
5회의 / 음성노동인권센터
2회의 / 음성군 농민회 사무실
'4회의 / 음성군 농민회 사무실

12/13충북혁신도시 탄핵 촉구 촛불집회 / 충북혁신도시 중앙광장

12/20충북혁신도시 윤석열 규탄 촛불집회 / 충북혁신도시 중앙광장



세월호 10주기 문화제, 금왕성당 구 성모어린이집 앞마당에서.

2. 음성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꿈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호죽노동인권센터 등 단체가 28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자/노조할 권리 찾기 선전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 -
- 음성지역 노동실태조사와 생활임금제,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음성군 노동정책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음.

	91차 회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2023년 활동 평가 및 2024년 활동 계획 논의
	4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원남산단
	82차 회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2024년 활동 세부 추진 계획
	6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원남산업단지
	1음성군 노동실태 및 노동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음성군청
	4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금빛체육관 - 스리랑카 설날 맞이 행사
	53차 회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생활임금조례 등 대응 방안 논의
	0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대소산단
	4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원남산단
	04차 회의 / 생활임금조례 간담회 참여, 소식지 제작 논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5금속노조 노동자모임 / 청주
	8노동자 권리찾기 현수막 게시 / 금왕읍 일대 4생활임금조례 정례의원간담회 출석, 진행 경과 질의 / 음성군의회
	1노동자 권리찾기 원남산단 선전전 45차 회의 / 민주노총 충북본부 -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통과를 위한 활동 논의 6/25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금왕읍 마트썬
	8취재요청서 / 음성군의회 음성군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1기자회견 /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음성군청 2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피켓팅 / 음성군청
	8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 촉구 피켓팅 / 음성군청 56차 회의 / 생활임금조례 통과를 위한 후속 활동 및 하반기 워크숍 논의 / 민주노총 본부 7/18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임시회 발언 / 음성군의회
	2생활임금조례 폐기 군의회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07차 회의, 워크숍 / 음성지역 이주노동자 조직 활동 방안 및 하반기 활동 계획 등 논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0노동자 권리 찾기 선전전 / 금왕농공단지, 금왕일반산단
	48차 회의 /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 대응,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후속 대응 등 논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2노동자 권리찾기 선전전 / 금왕테크노밸리
	29차 회의 / 소집권자 결정 및 근로자건강센터 음성분소 설치 논의 / 성본산단 인근 카페
11/1 7~12 /26	근로자건강센터 음성분소 설치 동의 서명 운동
	4민의를 적의로 되갚는 음성군의회 규탄 및 고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 / 음성군청

29



4월 30일, 금속노조 활동가, 간부들이 많이 온 날. 대소산단 현수막 게시 마치고.

3.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으며, 그루터기, 사회적협동조합 평화제작소,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관내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
- 장애인 이동권 모니터링, 지방선거 정책 질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2024년에는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예산감시 교육 활동을 펼쳤음.

	0회의 / 회칙 논의 / 자립센터
	5회의 / 자립생활센터 - 의회 모니터링 활동 계획 및 내부 운영 규칙 논의

	2회의 / 자립센터 – 활동계획 수정 및 의회 모니터링 활동 세부계획 논의
	7회의 / 자립센터 – 의회 모니터링 활동 실무 논의
5/27~6/12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모집
	4회의 /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준비 논의 / 자립센터
	4시민의 눈으로 군의회 바로잡기 현수막 게시/ 금왕읍 일대
6/17~6/24	제36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모니터링
	7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 참가단 활동 개시
	5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활동 공유회 / 자립센터
	6음성군의회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 배포
	2회의 / 자립센터 – 모니터링 참가단 활동 보고
7/18~7/26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9군의회 모니터링 후기 나눔 / 카페 용담 1<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현수막 게시 / 금왕읍 일대

30

	6세금감시 강좌 현수막 달기 / 음성군 일대
	2기획강좌 /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1강 / 금빛평생학습관
	9기획강좌 /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2강 / 금빛평생학습관
	3회의 / 예산 감사 강좌 결과 공유 / 자립센터
	5기획강좌 /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3강 /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2기획강좌 /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4강 / 금빛평생학습관
9/24~9/30	제37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모니터링
	0모니터링 후기 나눔 / 군청 앞 식당
	8회의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및 음성예산감시모임 운영 논의 / 자립센터
	3음성예산감시모임 /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운영 규칙 설명 청취 및 운영위원 선출 / 카페
	7회의 /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준비
	3음성예산감시모임 / 자립센터
	9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2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후기 나눔 / 자립센터

	3회의 / 자립센터
	4음성예산감시모임 / 자립센터
	2025년 본예산 심사 모니터링
	1음성예산감시모임 / 자립센터
	1비영리협의회, 모니터링단 쪽파티 / 금왕 유가네닭갈비



6월 24일 제367회 1차 정례회 방청을 마치고 한
컷. 6월 25일 활동 공유회,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4. 음성공동체영화상영네트워크

- 도토리숲 작은도서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소극장하다, 음성민중연대, 음성농민회,
음성여성농민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교조 충북지부 음성지회, 평화제작소 등 지역 단체,
개인들이 뜻을 모아 공동체상영네트워크를 구성, 유익한 영화, 다큐멘터리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하였음.

	3<어른 김자하> 공동체 상영회 / 설성시네마
	6<바람의 세월> 공동체 상영회 / 설성시네마

	2<해야할 일> 공동체상영회 / 설성시네마
	'5<괜찮아, 앤리스> 공동체 상영회 / 설성시네마
	8<퍼스트 레이디> 공동체상영 / 설성시네마

5.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 대풍산단 내 위치한 건국우유 공장에서 사내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 간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상담에서 확인되었음. 건국우유 수익금 전액이 건국대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건국대학교 학내 주체와의 연대를 구상, 네 차례 준비 모임을 거쳐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였음.

- 집행부와 참여단체를 구분하여 조직 구성. 집행부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서울지역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으로 구성하고,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스튜디오 R, 서울여성회 폐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동부지회는 참여단체. 박윤준(인권센터), 심규원(인권연합동아리 건대지부)가 공동집행위원장.

- 요구: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하고, 건국우유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하라!"

● 활동 목표

- 최종 원청업체인 건국우유가 간접고용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 직고용하도록 요구 ○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등 제도적 문제와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권리 사각지대 실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
-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의 책임성 부각
- 음성지역 당사자 주체와 서울지역 학내 주체의 조직과 연결/연대의 장을 모색 ●

결과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과 시정 명령에 따라 2024년 7월, 직고용 대상자 20명 중 희망자 9명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었음.
- 음성타임즈, 오마이뉴스, 더리브스 등 인터넷 신문과 MBC충북, CCS충북방송 등 지역 방송 매체, 한국일보 등에서 건국우유 내 불법파견/간접고용 실태 문제 다루었음.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스튜디오 R,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사회운동 단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었음.
- 출범 초기 단계에 당사자 주체가 함께하였으나, 직고용 이후 사측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이 어려운 상황. 후속 활동을 수립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6/1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준비모임 1차 회의 / 줌

32

6/12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준비모임 2차 회의 / 서울 건대입구역 다옴스터디
7/3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준비모임 3차 회의 /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7/7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준비모임 4차 회의 / 줌
7/17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건국대학교 상허문
7/17	사후 보도자료 배포 /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7/23	건국우유 공동행동 1차 회의 / 줌
8/12	건국우유 공동행동 홈페이지 개설 bit.ly/건국우유공동행동
8/13	건국우유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음성군청
8/26	건국우유 공동행동 2차 회의 / 줌
8/29	카드뉴스 발행 /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9인의 목소리 #1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
9/10	카드뉴스 발행 /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9인의 목소리 #2 충북 음성지역 활동가 &건국우유 노동자의 목소리
9/19	카드뉴스 발행 /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9인의 목소리 #3 불안정 노동에 반대하는활동가들의 목소리



출범

기자회견에서 건국대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6.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전체회의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광범위한 사회적 대중 투쟁으로 펼치고, 다양한 33

현장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확산과 세력화를 만들어가기로 결의.

- 센터는 운영단체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22024년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3단체 워크숍 / 발전노조(서울),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토론
	22024년 2차 운영위원회 / 줌

7.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2/1~2/3 3일간 진행된 체제전환운동 포럼은 다양한 부문, 주체들의 운동들이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넘나들면서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었음. 인권센터는 공동 주최 단위로 참여.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는 위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정체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성사된 정치대회. 박윤준 상담실장이 모둠 촉진자로서 참여.

	체제전환운동 포럼 2, 3일차 프로그램 참여 / 서울 스페이스살림
--	--------------------------------------

	3체제전환운동정치대회 전체회의 / 줌
	3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 서울 파이팩토리
	1체제전환 정치대회 촉진자 평가회의 / 줌
	11차 체제전환 충북모임 / 활동 소개 및 고민 나누기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10/23	윤석열에 분노하면서도 보수양당 모두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두끼기 수다회" 참석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8. 907 기후정책의행진 조직위원회

- 2022년, 2023년에 이어 대중적인 기후정책의행진이 개최되었음. 센터에서는 박윤준 상담실장과 박성우 상임활동가가 집행위원회 온라인팀에 참여하였음. 행사 당일 박윤준 상담실장이 거점 선동가로서 참여하였으며, 음성지역에서 8명이 참가하였음.

	7대학생기후행동 주최, 기후정의 페스티벌 참석 907 홍보 /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
	'8기후정책의행진 선포식 개최 / 세종문화회관
	'2기후정책의행진 포스터, 서울 지하철역 부착
	'7907기후정책의행진 참여 / 서울 강남대로
	6집행위원회 토론회 / 줌 7후속 토론회 / 프렌치스코 교육회관, 유튜브

9.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책의행진 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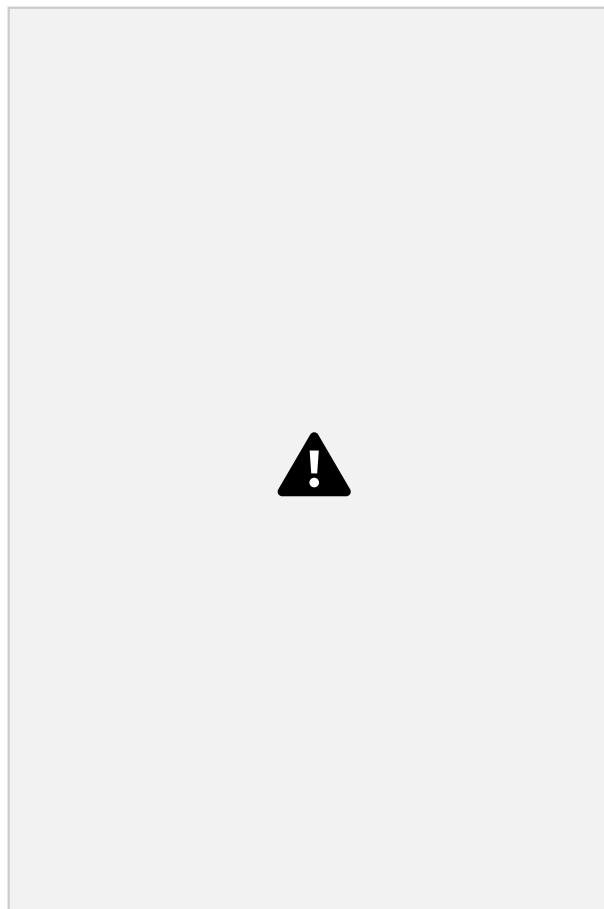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제안으로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책의행진을 개최하였음.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지역 노동자의 관점에서 요구안을 만들었음.
- 노동조합,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하였음.

	9분석팀 1차 회의 / 충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역할 분담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31차 기획단 회의 / 제목 및 취지, 진행 개요 등 논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8/28분석팀 2차 회의 / 충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1차 검토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34

	102차 기획단 회의 / 분석팀 2차 결과 보고 및 슬로건 확정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9/4	분석팀 3차 회의 / 충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2차 검토 및 요구안 초안 도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63차 기획단 회의 / 분석팀 최종 결과 보고 및 당일 프로그램 논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9/20	4차 기획단 회의 / 유관사업장 간담회 보고, 당일 프로그램 확정 및 실무 역할 분담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3928충북노동자행진 포스터 부착 / 청주 성안길 일대
	8928 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충북도청
	7평가 회의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여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정의!”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 행렬의 모습

10.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청 연계를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 최근에는 활동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1.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12.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충북운동본부

13.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

14.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

15. 연대 활동 평가

○ 박성우

- 비영리단체협의회 연대 활동에 주력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적잖았습니다.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은 첫 발족 이후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나 이후 갈수록 저조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 새로 모니터링단을 홍보해 지역주민들을 신규 단원으로 모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애초 계획했던 군의원과의 소통도 미흡했습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이러한 부족한 지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음성예산감시모임은 열정적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올해는 모임의 준비 및 자료 수집 기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성 지역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모여 재정을 살펴보는 시도라 기대가 큽니다.
- 이외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서도 많은 단체들과 교류했습니다. 기후-이주민-체제와 같은 거대담론은 사실 지역주민들도 일상 속에서 항상 느껴온 것들로 지역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의 주 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음성공동체영화상영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센터 또한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또한 기록과 정리가 미흡했는데 올해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 천윤미

- 지역 연대활동의 중심으로 센터가 활동해왔지만 2024년에는 살짝 버거움을 느낀 해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예산감시모임이나 의회모니터링 등 한 해에 새로운 사업들이 연달아 수립되면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역 연대사업에 최대한 3인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고 박성우 활동가가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입활동가에게 업무가 가중되었고 연대활동 실무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연대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연대 단체를 정비하고 참여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 연대단체들이 실무 활동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연대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활동가가 소수이고 새로운 얼굴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에서 활동가를 조직하는 일은 이후 센터 활동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이나 간단한 활동들을 배치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 박윤준

- 각각의 연대체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맡으며 폭넓고, 깊이 있게 연대 활동을 벌여온 한

해였습니다. 주로 제가 연대활동에 참여해왔는데 이 일들을 나머지 활동가들과 안배하고 조정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활동을 벌인지 3년 차가 되는 2024년은 조직 구성의 원칙을 세우는 등 체계를 잡아가는 한 해이면서 동시에 소수의 활동가, 단체에게 과업이 집중되어 버거움을 많이 느끼는 해였습니다. 천 차장님의 언급한 것처럼 사업 내용과 참여 방식에 관하여 소속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영리협의회에서 군의회 모니터링과 예산감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새로운 주체들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2025년에도 이분들을 중심으로 의회 모니터링과 예산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꿈틀은 노조할 권리찾기 선전 활동과 음성군 노동정책에 대응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주민발안제를 통해 청구하였던 「음성군생활임금조례」를 부결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한편, 산단 단위의 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2019.2.~2021.1.)이 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경로에 대한 내부의 상이한 이해,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음성지역 내에서 폭넓은 선전활동을 벌이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꿈틀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건국우유 공동행동은 음성 지역의 시민사회와 서울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가 공동의 행동을 도모하는 실험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운동 주체가 제안하여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정의 목표를 성취한 이후로 후속 활동에 관한 논의가 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더라도 논의를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928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 등 기후정의-체제전환을 표방하는 금진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운동에 센터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각각의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내부 역량 한계의 문제가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파. 공모사업

1.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 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 사업(300만원), 업무환경 개선 사업(복합기)
- 이주노동 기획 강좌, 심층 인터뷰 및 노동인권 소책자 발간 활동

6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 면접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2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 OT 1차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3업무환경 개선 사업, 복합기 수령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6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 OT 2차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5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 변화공유회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2. 고용노동부

2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음성군 노동정책팀 면담
0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서류 음성군 신청
0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확정
3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실습교육 / 줌
7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e나라도움 신청
9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예산 확정
5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4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5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행상황 1차 점검
2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행상황 1차 점검 결과 알림
3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행상황 2차 점검
6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직무 교육 / 줌
6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1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행상황 상담인원 점검
1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종료 및 박성우 활동가 계약 종료

3. 공모사업 평가

○ 박윤준

- 2024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은 센터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입니다. 지역 노동운동의 결실로서 음성군에 노동정책팀이 만들어진 배경 속에서, 음성군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간의 센터가 견지해왔던 ‘전액 후원금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내부에서 토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좋은 활동가를 만났다는 장점도 있지만 음성군과 위수탁 구조 안에

얽히면서 이해관계가 생긴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급격하게 늘어난 행정 노동도 고민해봐야할 지점입니다.) 센터가 하고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비전과 활동상을 정립하면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는 지난 3년간 연이어 센터가 선정되어 노동인권소책자 시리즈 발간 등 의미 있는 활동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 박성우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재정적 여유를 위해서도 공모사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합니다.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소책자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군의회 모니터링 시민참가단 또한 공모사업 덕분에 의회 모니터링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천윤미

- 올해 센터의 가장 큰 수확은 성우 활동가를 만나고 센터에 자리매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후원비 대다수가 인건비와 임차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때면 사업비와 일손 부족으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성우 활동가와 함께 하게 된 것은 ‘때마침 정해진 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정부사업이라 힘이 들었지만 공모사업에 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성우 활동가를 보면 흐뭇합니다.
- 올해 사업이었던 아주민 사업은 센터에서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업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주민은 언어도 생활도 달라 마주치기 힘들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관심 가지고 도움주셨던 통역사 선생님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주말에도 인터뷰와 상담을 진행했던 성우 활동가가 없었다면 풍성하고 다양하게 소책자를 엮지 못했을 겁니다. 노동법 강좌를 시작으로 통역사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연결해 온 실장님 등 공모사업의 결과는 회원활동과 연대, 교육 등 센터 활동의 모든 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수확입니다.

바. 내부 운영

1. 조직 운영

센터는 설립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주적 참여’를 운영 원칙(정관 제3조)으로 삼고 있으며, 연 1회 회원정기총회를 열어 센터의 주요 사업과 기본 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제11조), 업무 집행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제15조)

a. 제10차 회원정기총회

- 센터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워크숍 진행. 회원 12명 참석.
- 2023년 활동 보고 및 2024년 활동 계획, 예결산 심의. 회원 32명 참석.

'3제10차 회원정기총회 준비모임 /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제10차 회원정기총회 / 금왕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b. 운영위원회

- 회원정기총회 안건 논의
- 활동 보고 및 추진 계획 집행위 안 심의

6제1차 운영위원회 - 정기총회 안건 논의 / 자립센터
2제2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1제3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9제4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7제5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9제6차 운영위원회 / 한국보그워너티에스
0제7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4제8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2제9차 운영위원회 / 자립센터

c. 집행위원회

- 월 2회 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개최
- 일상 활동 공유, 기획 활동 추진 계획 등 운영위 안건 논의

0제1차 집행위원회 - 예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
0제2차 집행위원회 - 청소년 노동인권 현수막, 이주노동인권 기획 사업
4제3차 집행위원회 -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공모 사업
9제4차 집행위원회 - **** 불법파견, 부당 해고 대응
4제5차 집행위원회 - **** 병원 노동인권침해 대응

7제6차 집행위원회 -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공모사업

	1제7차 집행위원회 – 신입활동가 채용 관련
	1제8차 집행위원회 – 건국우유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추진 결의
	4제9차 집행위원회 – 신입 활동가 합류에 따른 역할 분담
	9제10차 집행위원회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체제전환운동 조직위 가입
	3제11차 집행위원회 – 이주노동자 인터뷰 계획
	4제12차 집행위원회 – 후원행사 준비
	0제13차 집행위원회 – 후원행사 실무 점검
	9제14차 집행위원회 – 후원행사 평가
	4제15차 집행위원회 – 정기총회 개최안

d. 운영위/집행위 수련회 “함께한 10년, 함께할 50년”

- 9/6(금)~9/7(토) 백야자연휴양림
- 목공 체험, 성희롱 예방교육 및 모둠 토론

- 지난 10년 활동
 뒤돌아보기, 앞으로의
 50년 내다보기 대표,
 활동가 발제 및 토론 -
 맛있는 식사, 야간 산책
 - 김규원, 김선애, 고소피아,
 박성우, 박윤아, 박윤준,
 안교신, 이상정, 정미정,
 천윤미, 최정희 참석.



성희롱 예방교육 마치고 강사님과 찰칵

2. 회원

2019년 3월 정관 개정에 따라 운영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시 의사에 따라 운영회원/후원회원 여부를 결정하며, 총회는 운영회원의 5분의 1

4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례상 운영위원, 집행위원, 감사 등은 운영회원으로 간주하고, 전년도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운영회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 운영회원(2025. 1. 기준 43명)

강기해, 강영모, 고병택, 고소피아, 공현정, 김국배, 김규원, 김선애, 김인경, 김정찬, 김창영, 남인숙, 박광현, 박성우, 박윤아, 박윤준, 박종석, 변영옥, 송슬기, 심현보, 안교신, 안말희, 안치석, 오나겸, 윤성훈, 윤희준, 이민아, 이병남, 이상용, 이상정, 이은영, 전소민, 전호연, 정미정, 정미진, 정윤미, 차홍도, 천윤미, 최영오, 최정희, 최창락, 한만규, 흥정연

b. 후원회원

- i. 등록 회원 479명(2025. 1. 기준)
- ii. 회비 납부 회원 333명(2025. 1. 기준)
- iii. 2024년 신규 회원: 68명

3. 활동가

a. 상임활동가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 활동가를 채용하였음.
- 5/24 면접 실시, 2명 지원자 중 박성우 상임활동가 채용 결정.
- 2024년 6월 2일부터 공모사업 종료일(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계약 체결.
- 2025년 1월 2일부로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하였음.
- 2024년 6월부터 박성우, 박윤준, 천윤미 등 상임활동가 3인 체제로 확대 운영.

b. 매주 수요일 ‘연구하는 날’ 운영(2022. 3월~)

-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은 상담 창구를 닫고 연구, 학습.

i. 질라라비 읽기 모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를 읽으며,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으로 정세 읽고 토론(회원 참여형)
- 7월부터 모임 중단

4<질라라비> 4월호 /인권센터
2<질라라비> 5월호 / 인권센터

6/24<질라라비> 6월호 / 인권센터

42

ii. 활동가 교육

- 신입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법 자가평가 및 자체 교육 진행
- 민주노총 등 외부 강의 참여

9박성우 활동가 노동법 자가평가(공인노무사 기출문제)
1신입활동가 노동법, 노동인권교육 / 청년센터
3민주노총 서울지역 신규 조직활동가 학교 /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

c. 활동가 휴가

5박윤준 연차휴가
9천윤미 연차휴가

	6박윤준, 천윤미 휴가
	2천윤미 연차휴가
	5박윤준 연차휴가
	9천윤미 연차휴가
	4천윤미 연차휴가
	8박윤준 연차휴가
	7박윤준 연차휴가
	5천윤미 연차휴가
	6박성우 연차휴가
	6박성우 휴가
	8박윤준 휴가
	3천윤미 휴가
	5천윤미 휴가
	6천윤미 보건휴가
	7천윤미 연차휴가
	7박성우 연차휴가
	8박성우 휴무(예비군 훈련)
	6박윤준 배우자 출산 휴가
	6박윤준 휴가

4. 재정사업: 2024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너와 내가 그리는 노동인권”

- 10/26(토), 금왕성당 구 성모어린이집 2층
- 센터 활동 및 이주민 인터뷰 소개 영상
- 회원, 노동조합, 투쟁 사업장 소개
- 회원 공연 및 필리핀 이주노동자 밴드 공연
-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함께 부르기

- 경품 행사

- 신규 회원가입 40명, 후원금 약 1700만 원 모금



5. 내부 운영 평가

○ 박성우

- 운영위원회 회의와 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회의 내용이 운영위와 집행위에 잘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 잘 공유되어야 하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 ‘연구하는 날’이 잘 지켜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수요일은 상담이 없는 날임에도 센터가 여려모로 연대활동을 비롯해 바빠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커보입니다. 올해는 확실히 달에 한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모든 일정보다 내부 교육 및 연구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활동가 교육과 연계해서 계획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 수련회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지금까지의 센터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센터 활동을 그려보았습니다. 대표님과 활동가들의 발제 내용이 회원들에게 공유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운영위원,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센터 활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 후원행사는 아주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공연도 훌륭했습니다. 경품 행사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품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한 해의 센터 활동을 소개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잖았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포스터 부착도 계획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후원행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 박윤준

- 2024년은 내부 운영 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가 3인 체제로

확대된 점,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집행위, 운영위 수련회를 진행한 점이 그렇습니다. 후원행사를 사업 목표에 부합되게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숨겨진 노동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치뤄낸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었던 것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과제들이 센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센터 바깥을 향한 에너지(원심력)가 많아지고, 센터 내부를 다지는 에너지(구심력)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2025년은 센터 활동의 고갱이를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 활동가 1~2인 체제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었던 <활동 규칙>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례를 참고하여 나열해보면, 활동가의 노동인권 보장 원리에 관한 <노동인권규칙>과 채용, 노동조건, 근무 시간과 급여, 경조사비 및 복리후생비, 출장, 휴가, 퇴직금을 포함한 기금 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에 관한 <내규> 등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지난 총회에서 신입활동가 인건비 적립을 의결한 것에서도 확인되듯이, 센터는 그간 상근 활동가 증대를 목표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의 조건에서 상근 활동가 증대를 중장기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근 활동가 증대가 아닌 다른 방향의 목표를 가질 것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고, 이 역시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센터의 활동 비전과 전략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활동주체로서 회원을 모아가는 일은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과제이지만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운영회원이 40여명이 되지만 운영회원들이 센터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운영회원제 도입의 주된 배경이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임을 받아야하는 노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신이 운영 회원이 되겠다고 선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담보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운영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센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2025년에는 일반 회원들이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수련회를 개최하면 좋겠고, 운영회원들이 카카오톡 소식방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원참여형 활동을 기획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들을 집행위원들이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아울러 신입회원/활동가에게 센터의 비전과 활동을 안내하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안내서>를 추후에 만들어보면 좋겠고, 안내서를 갖고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전후반기 1회씩 갖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참여자들 중에 센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신입활동가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하나씩 해나가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상임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바 ‘활동 재생산’을 위해 센터는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는 상담 활동이 아닌 여러 궁리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가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주 4일제로 하되 주 5일제 기준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회원 증대를 포함한 재정 목표를 분명히 세웠으면 합니다.

- 센터가 성장하고 있고, 대외적인 환경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활동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굳건히 지켜내고, 어떤 것은 과감히 바꿔내야 할지 다같이 분별해보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사명이 무엇인지, 센터는 어떠한 원칙을 붙잡고, 어떤 활동을 벌여나갈지 근본적인 주제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천윤미

- 센터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위 활동이 보다 왕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활동가들의 시야나 활동력의 편차가 크고 생각도 다양합니다. 때문에 여러각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적하고 움직이는 집행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또 수련회처럼 앞으로도 종종 센터 운영위 집행위가 함께 모여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년 사업계획을 짤때면, 올해는 어떤 후원행사로 후원자들을 만날까 고민에 빠집니다. 이왕 할거면 모두 재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행히 오시는 분들이 즐거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보이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움팀 항상 사랑합니다~.

46

사. 대외 활동

1. 음성군

a. 음성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센터에서는 천윤미 흥보차장이 참여하고 있음.
- 3/12 1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음성군 노동정책기본계획에 관하여 심의하였음.

b. 음성군 노사민정실무협의회

-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계획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하는 기구. 천윤미 흥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3/26, 10/13, 11/13. 3회 개최

c. 음성군 소식지 편집위원회

- 음성군 소식지 제작 관련 자문하는 기구. 천윤미 흥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월 1회 회의 개최하고 있음.(1,2,3,4,5,6,7,10,11월 회의 참석)

2. 충청북도

- a. 충북도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 초기 논의에 박윤준 상담실장 참여
- b. 충북도 인권보호관협의체
 - 박윤준 상담실장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11월부로 임기 종료.
- c. 충북도 인권위원회
 - 박윤준 상담실장이 인권위원으로 위촉. 12월부로 활동 시작.
 - 12/17, 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충북도 인권기본계획 심의.

	6충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광태원 사무국장(노동특별보좌관) 센터 내방, 충북도 이주노동자 정책 관련 논의.
	6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 충북연구원
	4충청북도 인권보호관협의체 0충청북도 인권보호관협의체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의견서 송부 8충북도노사민정협의회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2차) / 한국노총 충북본부
	9충청북도 인권보호관 회의
	7충북도 인권위원회 / 충북도청

- d. 대외활동 평가

○ 박성우: 대외 활동은 실장님과 차장님 두 분만 믿고 있습니다.

○ 박윤준

- 센터의 직함을 달고 참여하는 회의체이지만,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센터 내부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음성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와 권리보호위의 위상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요 논의 단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보호위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면 좋겠습니다.

○ 천윤미

- 2022년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가 위원들이 군에서 발제하는 기본계획의 진행정도만 보고 받거나 위원이 소속한 단체 위주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회의가 연 1회 정례회의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실무논의 자리가 필요하며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 센터는 대표들이 참가하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신 제안받은 자리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자리로 노사민정협의회 소속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회 전 군에서 제출하는 회의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제 의결 기구인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는지 미리 요구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무협의회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수입/지출 결산서

(1) 수입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전기이월금	8,048,123	8,048,123	100.00%
단체후원회비	4,200,000	4,110,000	97.85%
개인후원회비	38,400,000	38,405,000	100.01%
후원금	22,000,000	24,614,030	111.88%
지원금		2,913,260	
잡수입	51,877	94,715	182.57%

합계	72,700,000	78,185,128	107.54%
-----------	-------------------	-------------------	----------------

(2) 지출

과목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인건비	42,400,000	42,869,355	101.10%
퇴직금적립	3,500,000	3,500,000	100.00%
사회보험비	4,620,000	4,054,985	87.77%
복리후생비	1,400,000	1,400,000	100.00%
회의비	700,000	534,500	76.35%
연구및교육비	1,000,000	569,450	56.95%
회원사업비	1,000,000	528,500	52.85%
사회연대비	1,600,000	1,660,190	103.76%
홍보비	1,000,000	678,860	67.88%
출장비	300,000	198,070	66.02%
후원행사_지출	1,500,000	647,230	43.14%
임차비	6,000,000	6,000,000	100.00%
신문도서비	100,000	100,000	100.00%
공과금	1,500,000	1,567,640	104.50%
소모품비	800,000	1,046,350	130.79%
CMS운영비	1,700,000	1,922,540	113.09%
보증금상환	1,000,000	1,000,000	100.00%
잡비	80,000	18,510	23.13%
예비비_목	2,500,000	1,667,660	66.70%
합계	72,700,000	69,963,840	96.23%

2. 월별 수입·지출

	수입	지출	수입-지출	잔액
전년도 이월금	8,048,123			8,048,123
1월	3,755,610	5,970,930	- 2,215,320	5,832,803
2월	3,490,000	4,851,710	- 1,361,710	4,471,093
3월	3,920,000	5,625,800	- 1,705,800	2,765,293
4월	3,300,304	4,516,000	- 1,215,696	1,549,597
5월	3,730,000	4,439,680	- 709,680	839,917
6월	6,511,566	4,682,310	1,829,256	2,669,173
7월	3,493,590	5,556,110	- 2,062,520	606,653

8월	5,755,240	5,117,000	638,240	1,244,893
9월	4,798,000	5,326,090	- 528,090	716,803
10월	20,665,080	7,414,500	13,250,580	13,967,383
11월	5,252,070	5,951,420	- 699,350	13,268,033
12월	5,465,545	10,512,290	- 5,046,745	8,221,288
누계	70,137,005	69,963,840	173,165	8,221,288

3. 자산 보유 현황(2024. 12. 31. 기준)

현금 보유액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고
1	농협	351-0802-5012-33	1,456,553원	후원계좌

2 우체국 3008285-01-004298 6,764,735원 일반계좌 합계

예비 활동가 인건비 적립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고
1	농협	351-0903-1542-13	1,000,000 원	일반계좌
합 계			1,000,000원	

51

10년 활동 보고(2015~2024년)

52

가. 개소부터 지금까지

- 2015년 3월 3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현 위치에 개소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앞서 개소한 청주노동인권센터 운영진과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합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센터에서 파견 나온 조광복 노무사와 지역에서 채용된 안말희 사무국장이 함께했던

2015~2016년은 ‘노동인권 불모지’였던 음성지역에 ‘상담 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의 씨앗을 심는 시기였습니다. 단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상담이 개소 시작과 함께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연간 300건이 훌쩍 넘는 상담이 이루어졌고, 체불임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 박윤준 상담실장(2017년~)이 활동을 시작한 2017~2020년 기간은 ‘동네 노동상담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시기였습니다. 음성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센터 사무실을 두드렸으며, 센터는 과로사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까지 다방면에서 의욕적으로 노동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조광복 공인노무사가 2017년 9월 청주센터로 복귀한 이후 한 명의 활동가가 상담 활동과 센터 운영 전반을 도맡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당시 정규직 전환 및 해고 투쟁을 하던 정윤미 상담부장이 인권센터 활동가로 합류함에 따라 2019년~2020년 기간 2인 활동가 체제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회복하였고, 센터의 상담 활동이 지역사회에 스며들며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 정윤미 부장 활동 종료 직후 천윤미 흥보차장(2021년~)을 영입하면서 2인 활동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센터의 활동 역량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1년~2023년 ‘코로나19’, ‘기후 위기’, ‘경제 위기’, ‘노조법 2,3조 개정’ 등 현재 정세와 의제를 분석하여 활동 기조를 구체화하고 이를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체의 경제정책이 지역의 노동인권 문제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음성군의 기업 유치, 일자리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낳은 여러가지 문제점(작은 사업장 난립, 열악한 노동환경, 구인난, 직업소개소 난립, 공공인프라 약화, 이주노동자 인구 대거 유입,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 생태계 파괴 및 주민 갈등, 자연마을 공동체 와해)을 분석, 정리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내 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이때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음성군 노동 조례가 만들어졌고, 노동정책팀이 신설되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2024년 센터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만나지 못했던 지역 이주노동자,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용직/파견 노동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한 해였습니다. 비영리협의회, 꿈틀, 기후정의행진 등 연대체의 활동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국우유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서울지역 학생/사회운동 단체와 결성하여 새로운 활동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대전에서 온 20대 청년 박성우 활동가가 센터 활동을 개시하면서 센터 활동이 더욱 역동적이고 풍성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3인 활동가 체제가 된 인권센터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어의 변화

- “노동인권이 존중 받는 음성 지역!”(2016)
- “음성에는 동네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2017)
-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네 노동상담소!”(2018)
- “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노동인권상담소!”(2019)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음성사람들”(2020)
“사회적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하게 연결되자”(2021)
“노동인권 상담역량 강화의 해”(2022)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 찾아내자”(2023)
“우리 지역 숨겨진 노동자와 연대하기”(2024)



2015년 3월 3일. 음성노동인권센터 개소식 사진. 청주시민사회, 노동조합에서 응원하러 많이들

오셨다. 54

나. 부문별 활동 돌아보기

- 지난 노동인권센터의 활동을 상담 및 법률지원, 공론화, 교육, 회원 및 문화 활동, 내부 운영을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방법 또한 대면/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출장, 이메일, 온라인 줌(화상 회의) 방식의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 조광복 공인노무사가 청주센터로 복귀한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활동가들이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면 작성률 도와드리거나, 출석 조사 시에 조력자로서 동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상담 주제 목록

해고(권고사직, 사직 강요,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 정리해고, 수습/시용 기간
해고, 전환기대권, 갱신기대권 등)·징계·인사이동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 관련
임금·퇴직금·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시간·휴가/휴일·병가·휴업·폐업·영업
양도/양수 인권 침해(CCTV노동감시, 오줌권 등)·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과로사·출퇴근 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차별/인권침해·비자 갱신·사망 사고 대응
- 외국인지원센터, 소피아외국인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등 상담 연계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원하청 관계에서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
불법파견/위장도급 직장 내 민주주의(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노동조합 운영)
노동조합 가입/설립, 단체협약 검토, 노조 내부 갈등 중재
노동인권 및 권리 침해에 따른 민·형사·행정 절차
장애인 고용 사업장 내 인권침해, 차별 문제, 근로지원인 제도 악용 사례 대응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상담 연계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배임/횡령, 계약 해지 사업주 미신고 대응, 구직급여
관련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노동법 위반사항 조정

※ 법률 지원 목록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서면 지원/출석 조사 동행/고객상담실·근로감독관 대응/체불임금액 산정서, 의견서 제출/증거 자료 관리
고용노동부 고소 사건 서면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청원 사건 서면 지원/지청 면담 등 대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재 은폐 등) 관련 신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서면 지원/출석 동행 및 심리 지원/화해절차
지원 형사 고소 서면 지원/출석 조사 동행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서면 지원/재판 출석 동행/채권 추심 지원
사측 대상 법률행위(내용증명·최고장 등) 서면 지원
공공기관 대상 의견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검토 의견서
간이대지급금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 서면 지원 등 근로복지공단 대응
공인노무사·변호사 연결

- 지난 10년 간 각 부문별 상담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공론화 활동

현수막 게시



- 인권센터 공론화 활동의 기본은 ‘현수막 게시’였습니다. 지역에서 현수막만큼 사안을 알리는 효과적인 매체가 없다보니 현수막을 통해 노동법 준수, 임금체불 신고 접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벌여오고 있습니다.

연구, 실태조사, 토론회



- 상담을 통해 확인된 지역 노동 문제를 사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공론화 활동은 인권센터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활동 초기에 발표했던 <음성군 고용 및 노동실태와 시사점>은 음성군 내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담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는 소개요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중간 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간접고용이 팽배한 음성지역 일자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 3.8 여성의 날을 맞아 음성지역 여성노동자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음성지역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발표하고, 여성의 날 행사장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에서 <음성지역 노동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같은 날 <음성지역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음성지역의 주요한 노동 문제와 노동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을 얻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 2020년부터 ‘원남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2022년 음성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꿈틀로 명칭 변경)’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2년마다 산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통계를 분석하여 <음성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 음성군에서는 2023년 최초로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음성지역 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고, 인권센터와 꿈틀이 발표해왔던 자료들도 인용되었습니다.

*발표 자료 목록

- <음성군 고용 및 노동실태와 시사점>(2016, 조광복)
- <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2016, 조광복)
- <음성지역 여성노동자의 인권>(2018, 박윤준)
- <음성군 노동환경 실태조사>(2020, 원남사업단)
- <음성지역 노동실태>(2021, 박윤준)
- <음성지역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과제>(2021, 천윤미)
- <음성군 노동환경 실태조사>(2022, 꿈틀사업단)
- <6.1 지방선거 정책 질의에 대한 군의원, 군수 후보들의 응답>(2022, 비영리협의회)
-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2022, 비영리협의회)
 -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3, 음성군)
- <음성군 노동환경 실태조사>(2024, 꿈틀사업단)

라디오 인터뷰

- 2017년부터 2주마다 KBS총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코너에 2025년 1월까지 총 141회 출연하여 지역, 전국 노동인권 이슈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월간노동상담 카드뉴스

-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월간노동상담>을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시용, 연차휴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산재보험미가입자의 산재신청,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사업장 이전, 임금 삭감, 질병, 간병 등), 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조기 출근, 장애인노동자와 근로지원인, 허위 채용광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직하려는 노동자에 대한 위약금 문제 등 일반인들에게는 알쏭달쏭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노동인권소책자

- 지역 노동 실태와 노동인권 주제를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 2022년 노동권과 음성지역 노동 실태를 다룬 <안녕! 노동인권>을 펴냈고, 2023년에는 지역 노동조합의 역사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충북 음성군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세번째 노동인권 소책자 <내 이름은 이주민 -지역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냈습니다.
- 2024년 11월에 소책자 신청을 받아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3) 교육, 회원 및 문화 활동

노동법 등 강좌

● 개소 첫해에는 노동법 강좌를 개최하였고 지역 내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노동법 강좌를 단독으로 주최하지 못하였고, 2019년과 2021년 연대체에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센터가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기획하고 개최하였습니다.

- 2015년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강좌> 3회에 걸쳐 진행. 강의 요청한 단체, 노동조합, 기업체 등 대상으로 수시로 노동법 강좌, 내담자들 대상 노동법 강좌 등 다수 교육 활동을 벌였습니다. ● 2016~2018년 기간에는 노동법 강좌를 주최하지 않았고, 강좌 요청에 따른 노동법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충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14회 진행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연말에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취업예정자 대상 노동법 교육을 의뢰 받아 진행하였고, 학교밖청소년, 활동가 대상 노동법 교육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에는 ‘우리동네 인권연구회’를 결성하여 독서 토론을 거친 후에 <인권의 눈으로 우리동네 둘러보기>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21년에는 인권센터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가장자리 강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과 공공의료’, ‘기후위기와 불평등’, ‘이동권’, ‘노동정책’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친 강좌였습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임금명세서 해독하기’, ‘바뀌는 노동법 따라가기’ 등의 주제로 노동법 강좌를 열었습니다.
- 2022년, 센터 개소 처음으로 정세 강연을 <경제를 알아야 노동이 보인다. 경제 위기 속 노동자 권리찾기> 주제로 열었습니다. ‘기후 위기와 노동’을 주제로 서울지역 5곳에서 각 1회씩 대소중학교에서 6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영등포산업선교회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 프로그램에서 노동인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3년 <지역에서 노조할 권리찾기> 강좌를 기획하여 ‘노동조합의 역사와 필요성’,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충북 노동운동사’, ‘음성지역 노동조합 역사’ 등을 지역 교육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서 들었습니다.
- 2024년, 센터 기획으로 <노동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이주민의 삶>을 진행하여 ‘이주민 노동인권실태’, ‘신자유주의와 노동 이주’, ‘이주노동자와 국제연대’ 강좌를 이주민

노동인권활동가, 연구자, 활동가로부터 각각 들었습니다. 비영리협의회에서 <시민의 눈으로 군의회 바로잡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등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60

회원 교류 / 문화

- 2016년 회원 야유회, 손수건 천연염색 체험, 센터에서 영화 <터널> 상영
- 2017년 회원 야유회, 센터에서 송년 파티
- 2018년 노동인권 독서모임 시작. 다큐멘터리 <사수> 상영, 회원 송년회
- 2019년 노동인권 독서모임, 반기문마라톤대회 회원들과 함께 달리기
- 2020년 노동인권 독서모임, 노동인권영화제, <조끼 하나면 충분하다> 상영 ●
2021년 노동인권 독서모임
- 2022년 신년맞이 떡국 모임, 노동조합 만남의 날(하나로택시분회, 북충주농협분회), 청개구리 독서모임 새롭게 시작.
- 2023년 청개구리 독서모임, 공동체상영준비위원회 주최, <열개의 우물>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 2024년 청개구리 독서모임, 세계노동절 참가, <내 이름은 이주민> 북콘서트

4) 내부운영

후원 회원(단체 포함)

- 센터는 회원들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독립적인 활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19-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후원회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15년: 53명
- 2016년: 170명
- 2017년: 199명
- 2018년: 234명
- 2019년: 210명
- 2020년: 확인 필요
- 2021년: 확인 필요
- 2022년: 257명
- 2023년: 280명

- 2024년: 333명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61

- 설립 초기 5년 동안에는 노동조합 간부, 남성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진이 구성되었다면, 이후 5년은 부문별 활동 주체(이주민/장애인), 이주민 통번역사, 공인노무사가 운영위원회로 함께하면서 여성 주체들이 늘어나고, 노조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점차 인원이 보강되어 4명의 집행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제1기 2015년~2016년
 - 운영위원 : 고병택/음성자치신문 기자, 김광호/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장, 김규원/집행위원장, 이병남/(주)진남케미칼 대표이사, 이상용/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정/음성군의원, 김영현/음성군노동조합위원장, 이화영/전국공무원노동조합음성지부장
 - 집행위원 : 김규원 집행위원장
- 제2기 2017년~2018년
 - 운영위원: 고병택/음성타임즈 대표, 김규원/집행위원장, 이병남/(주)진남케미칼 대표이사, 이상용/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정/충북도의원, 김영현/음성군노동조합위원장, 최종순/전국공무원노동조합음성지부장
 - 집행위원 : 김규원 집행위원장, 백형록/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 제3기 2019년~2020년
 - 운영위원: 강기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음성지부장, 고병택/음성타임즈 대표, 김규원/집행위원장, 안교신/삼동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용/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정/충북도의원, 정미정/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집행위원 : 김규원 집행위원장, 최정희
- 제4기 2021년~2022년
 - 운영위원 : 강기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음성지부장, 고소피아/소피아외국인센터장, 김규원/집행위원장, 안교신/삼동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용/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정/충북도의원,

정미정/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집행위원 : 김규원 집행위원장, 정윤미/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정희 •

제5기 2023년~2024년

62

- 운영위원 : 강기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음성지부장, 고소피아/소피아외국인센터장, 김규원/집행위원장, 김선애/공인노무사, 박윤아/몽골통번역사, 안교신/삼동노동조합위원장, 이상용/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정/충북도의원, 정미정/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집행위원 : 김규원 집행위원장, 심현보/핸켈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정윤미/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정희

대표

- 2015.3. ~ 2018.1. 석응정(선교사)
- 2018.2. ~ 2024.1. 김광호(화물연대)
- 2024.2. ~ 현재 김규원(민주연합노조, 음성환경)



2015년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2024년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워크숍

63

다. 10년 주요 활동 10選

1. 직업소개소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2016년)

2016년 10월, 노동인권센터와 이상정 군의원이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음성지역에서 만성화되어 있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지역사회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당수의 직업소개소들이 당시 법정 소개요금의 범위인 임금의 4% 이하를 훨씬 넘어선 임금의 10~20% 이상을 일용직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성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2. 금왕하수처리장 무단 방류 내부 고발(2016년)

당시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년 전부터 하루 평균 1천 톤에 달하는 오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작업일지가 전호연 회원의 공익제보와 충북인뉴스 취재를 통해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업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내부고발자인 전호연 회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음성군이 책임져야 할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위탁업체에 맡겼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전호연 회원님이 방류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충북인뉴스 육성준 기자 사진 64

3. 신세계푸드 간접고용 노동법 사각지대 고발(2017년)

2017년 노동인권센터는 원남산단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이 다단계 하도급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사내하도급업체가 직업소개소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1억 8천 여만원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체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업체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세계푸드 공장이 언론에 ‘S푸드’로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같은 산업단지 내 소세지 공장 ‘에쓰푸드’가 자발적인 시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직업소개소-제조업체 간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구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음성지역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앞에서 연 규탄 기자회견

4. 음성군체육회 갑질 고발(2017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폭언, 욕설, 갑질을 한다는 제보가 인권센터에 접수되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인권센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무국장의 괴롭힘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해당 사무국장은 즉시 해임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음성군이 해임아 아닌 ‘사직’으로는 내용으로 화해(합의)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임으로 처분될 경우 향후 취업 등에 있어 제재를 받는다는 사무국장측의 요구를 음성군이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과 더불어 “갑질”은 당시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다른 지역 체육회에도 음성군 체육회 갑질 사건이 알려졌고, 허날 체육회 지도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65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갑질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 충주택시-하나로택시 사납금제 철폐 및 노조 설립 투쟁(2018~)

2018년 어느날 센터에 찾아온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택시노동자에게 사납금을 요구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삐감하는 불법적인 악성 관행이 법인택시 사업주와 어용 노조 간의 결탁과 행정관청의 방관으로 수십년 간 지속되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혁파하려던 노동자들은 사측과 어용노조로부터 고소, 고발,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규합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를 만들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법인 택시 운영에 눈 감아왔던 충주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주지역 내에 민주노조를 설립하였고, 충주시에 택시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으며, 불법 사안 상당수가 부족하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완전월급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납금 관행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수 년간 조용했던 충주시 브리핑룸에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나타났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 발대식의 모습. 현수막에 걸린 이름은 잘못된 이름.

66

6.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처분한 사업주에 대한 국내 최초 실형 선고(2019~2022년)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에 괴롭힘 신고가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생극면 소재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리자가 신고식 명목으로 신입 직원에게 회식을 사게 하는 등 오랜 기간 조리노동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괴롭힘 피해자를 도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괴롭힘 신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사업주는 신고자가 무단 결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괴롭힘 퇴사한 이들을 포함해 괴롭힘 피해자들을 모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여,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었고, 신고자에게는 타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업체 사업주를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전보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인정 받았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즉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 되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가 다시금 조명받았습니다. 2022년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위원회와 공익법률센터에서 이번 판결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형사 판결에 따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해주어 피해노동자가 사족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67

7.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기본계획

수립(2021~2023)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음성군 경제산업국장과 군의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윤준, 천윤미 활동가가 음성지역 노동실태와 음성군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과제를 각각 발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하게는 ‘노동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얼마 뒤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군의원이 노동전담부서와 노동정책 필요성에 관해 군의회 5분 발언을 하였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조례는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산업 안전,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음성군은 2023년 경제산업국 산하에 노동정책팀을 새롭게 만들었고,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음성군은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노동권리보호관(노무법인 숲 권태혁, 임청아 공인노무사)을 위촉하였습니다. 생활임금조례, 작업복세탁소,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등 추진해야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음성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성군 노동 기본 조례가 통과되고서. 천윤미 흥보차장과 조례 발의자 서효석 의원 68

8. 20년 만의 직영 전환, 문화환경업체 비리 대응 및 청소업무 정규직 전환 투쟁 2021년 4월,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문화환경 노동자들이 사측의 불법 행위를 내부고발하였습니다. 문화환경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 제 1권역을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음성군은 5월 10일, 대행업체 4곳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센터는 문화환경 노동자들과의 상담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법령 위반과 노동인권 침해 사안을 분석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환경의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조금 횡령, 직원 아닌 자에게 인건비 및 주유비 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형광조끼 및 우비는 노동자가 개별 구매해야하는 등 미흡한 안전 장비 실태, 열악한 휴게 공간, 계약상 의무 채용 인원보다 적은 인원 채용하면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소수 종사자들에게 손쉬운 일감을 주고 고액 연봉 지급, 3인 1조 작업 의무 위반 등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지자체의 거의 유일한 지도감독 수단 중 하나인 ‘대행실적평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4개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문화환경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1등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마저 음성군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병옥 군수는 6월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문화환경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문화환경 노동자들이 음성군에

직고용된 공무직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정년 문제에 관한 출다리기 교섭이 있었지만, 노동조합 측이 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은 9월부터 음성군 소속으로서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준 지 20여년 만의 첫번째 직고용 쟁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조금을 횡령하였던 문화환경 사업주는 지난 2024년 11월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조 군수가 약속했던 심층논의기구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직영 전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부문에서부터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69

9. 건국우유 간접고용,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대풍산단에 위치한 건국유업, 건국햄(이하 ‘건국우유’) 공장은 건국우유의 유일한 제조공장입니다. 1999년부터 음성 공장을 가동을 시작하였으니, 25년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건국우유에서 일했지만 공정에 따라 신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건국우유는 저장 탱크에 담긴 우유를 우유곽에 담고, 밀봉하고, 포장하고, 분류, 유통하는 일련의 작업 공정을 공정에 필요한 노동 강도에 따라 원하청을 분리시켰습니다. 공장 한 가운데 큰 벽이 쳐져있고, 한 쪽에는 원청노동자가, 다른 한 쪽에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직업소개소에서 파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사무직이거나 자동화율이 높은 생산 공정에서 일을 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장, 분류, 유통, 그리고 상자 세척 작업 등 고강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건국우유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며 센터를 찾아온 A씨는 대소면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다니던 노동자였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지만, 하청업체에 고용된 적이 없는 그는 유령 직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도 지급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보니, 2017년 신세계푸드 사건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건국우유 사내하도급업체가 직업소개소와 결탁하여 일용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청 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했다는 제보 또한 있었습니다.

센터는 2024년 5월 고용노동부 총주지청에 건국우유와 사내하도급업체,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사내하청업체와 직업소개소가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건국우유와 직업소개소 간의 불법파견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일용직 노동자가 총 33명인데 그 중에 20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A씨를 포함한 9명이 직접 고용이 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편 건국우유는 1~2년마다 사내하도급업체를 바꿔오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 대상이 된 사내하도급업체는 2024년 2월부터 들어온 업체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이전 업체와 관련된 자료들과 근로자 명부를 모두 폐기 처분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감독 대상 기간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만해서 체불된 임금이 2천만원이 넘었는데,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제대로 감독을 하였더라면 수 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총주지청은 그 이상의 감독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국우유 불법파견 사건을 만나면서 2017년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 제기하였던 간접고용 문제가 지난 7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경기에 따라 정도는 달라지지만, 직업소개소는 꾸준히 성행하고 있고, 어느덧 100여개의 직업소개소(무등록 포함)들이 영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은 음성 지역의 문제임과 동시에

70

전국의 제조업체 내에 상존하고 있는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였습니다. 센터는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모아내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건국우유의 수익금 전액이 건국대학교 학생 장학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내 학생 주체들을 수소문하였습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의 주선으로 서울지역 인권연합동아리 건대지부와 서울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동부지부의 건국대 학생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인권센터와 뜻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는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하고, 건국우유 내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하라!”는 구호 아래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지난 2024년 7월 출범시켰습니다. 이날의 행동에 서울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이 연대하고, 각 단체의 소식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이 사안을 다뤄주었습니다. 음성지역과 서울지역 간의 연대, 현장 노동자와 학생 주체들간의 연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언론 매체에 건국우유 불법파견, 간접고용의 문제점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국우유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아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투쟁을 외치다!

10. 노동인권소책자 발간

<꿈의 도시 꾸리찌바>(박용남, 2000)는 생태적인 대안 도시의 모델로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불평등한 주거 형태와 도시 공간과 같은 현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이 도시가 어떻게 개선해갔는지 이 책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그중에 꾸리찌바 시에 대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환경을 어린이들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쓰에 꾸리찌바나스>라는 안내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열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책들을 후배들에게 되물림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학’적인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리쏭에 꾸리찌바나스에 영감을 받아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책자의 형태로 만들어 펴내면 좋겠다고 박 실장이 제안하였고, 운 좋게도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의 사회변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금전적인 걱정 없이 소책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지역 노동인권 실태 전반을 다룬 <안녕, 노동인권!>을 냈고, 2023년에는 음성지역 노동조합에 관한 주제로 <충북 음성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2024년에는 음성지역 이주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엮은 <내 이름은 이주민>을 냈습니다. 인권센터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음성지역 농민들의 이야기,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 기후위기와 노동에 관한 주제 등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아는 만큼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소책자도 기대해주세요!

- ❖ 위 10가지 활동 외에도 지역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만든 귀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00전선 과로사 산재보상청구 및 유족 지원, 깨끗한나라-보노아 CCTV노동감시, 불법 포괄임금제 내부 고발 및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차별 및 부당 인사발령 대응, 국가기술표준원-한국인정지원센터 성과제 개악 및 평가 갑질 고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규탄 1인 시위, 충주00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에 따른 입주민 연대, 00요양원 어르신 인권침해 및 요양보호사 노동권 침해 내부고발, 시너스텍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대응, 사내 하청 재해자 별점 부과 및 산재 은폐 공장 노동부 고발 등등… 용기를 낸 분들 덕분에 지역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 회원 여러분에게 인상 깊은 센터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건 상정의 배경

- 지난 10년의 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센터는 지역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줄기차게 활동해왔습니다. 노동 상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개입, 투쟁 현장과의 연대, 노동조합 조직,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조직, 노동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소책자 출판 등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귀중한 변화를 일궈내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총회를 비롯한 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 하지만 2025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센터의 핵심 임무인 노동 상담, 법률 지원 활동은, 베테랑 공인노무사가 활동했던 초기에 비하면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매년 후원행사를 열지 않으면 활동가 인건비를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음성군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지만, ‘기업 유치’, ‘일자리 증가’로 표현되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를 위한 행정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권리 침해 문제는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임금조례 부결 및 고소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노동환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방의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동조합과 미조직 노동자, 청소년, 대학생, 공무원, 주부,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노동자’ 이름으로 결속력을 갖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지역 사회운동의 기반은 아직 디딤돌조차 제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 이제 잔 걸음을 멈추고, 센터가 앞으로의 5년, 10년, 그 이상의 세월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긴 호흡을 갖고 이야기 나눌 때인 것 같습니다. 활동가의 자리에서 보는 시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 센터를 응원해주는 분들과 센터의 비전을 만들고, 활동의 전략을 벼리는 한 해로 2025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 이에 지역 노동자들이 직접 “2030 노동인권 비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2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활동가, 집행/운영위원, 관심있는 회원, 노조 활동가 등으로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위원회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워크숍을 통해 학습하고, 센터의 비전, 활동 전략과 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들과 친목을 쌓기 위한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 안건을 다루고 나서는 2030년 우리가 바라는, 노동인권이 실현된 지역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를 위해 인권센터가 꼭 해야할 일들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가감없이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4

안건1. 2025년 활동 계획(안)

“지역 노동자가 만드는 2030 노동인권 비전”

1. 2025년 핵심 과제

- 2030 노동인권 비전 수립
-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

다. 회원 친목 도모

2. 사업 계획

가. 2030 노동인권 비전 수립

- 2030 비전위원회 구성
- 대내외 정세와 실태를 다루는 워크숍(회원 참여)
- 2030 비전을 위한 활동 전략과 계획안 도출
- 2030 비전 선포식 및 선언문 작성, 발표(2026년 2월, 12차 총회)

나. 상담 및 법률 지원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

- 김선애 공인노무사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노동법 교육, 상담 사례 연구 •
상담 내역 사례화, <월간노동상담> 카드뉴스 두 달에 한 번씩 발행

다. 회원 친목 도모

- 회원과 함께하는 수련회
- 청개구리 독서모임 매월 운영

비전위원회 노동법 교육 월간노동상담 청개구리

3월	4월	5월	6월	7월
위원회 구성		비전 워크숍		

후원행사/수련회

				수련회

75

안건2. 2025년 예산(안)

(1) 2025년 수입 예산 (단위: 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전년도 대비 증감
이월액	전기이월금	8,221,288		△173,165
회비	단체후원회비	4,200,000	350,000×12개월	

	개인후원회비	42,000,000	3,500,000×12개월	
후원금	후원금	5,000,000		△1,000,000 (인건비적립금)
	후원행사	18,000,000		
지원금	지원금	25,200,000	1,800,000×6+1,440,000 *4 +800,000(육아지원금)	

잡수입 예금이자 등 78,712 예금이자 등 △26,835 합계 102,700,000

(2) 2025년 지출 예산(안) (단위: 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전년도 대비 증감
인건비	인건비	64,800,000	1,800,000×36개월	△22,400,000
	퇴직금적립	5,400,000	인건비÷12	△2,200,000
	사회보험비	7,128,000	인건비×약 11%	△2,508,000
	국민연금 과오납금	2,646,790	윤미30개월 1,696,390 성우, 센터 6개월 950,400	△2,646,790
	복리후생비	1,250,000	명절상여금 250,000×5	△250,000
		400,000	여름휴가비 200,000×2	
	회의비	1,000,000		△300,000
사업비	연구및교육비	1,500,000	교육.연구.문화행사	△500,000
	회원사업비	1,500,000	야유회.회원모임 등	△500,000
	사회연대비	1,800,000	사회연대 및 담보조비용	△200,000
	홍보비	1,000,000	홍보비	
	출장비	300,000	출장비	

후원행사_지출 1,500,000 후원행사

운영비	임차비	6,000,000	500,000×12개월	
	신문도서비	100,000	도서 등	

	공과금	1,800,000	통신, 전기 등	△300,000
	소모품비	800,000	문구 및 정수기 물, 난방유	
	CMS운영비	2,000,000	수수료, MRM이용료 등	△300,000
	보증금상환	1,000,000	청주센터 보증금 상환	전체 1천 만원 중 2백 만원 상환 (2024.12월기준)
	잡비	100,000		
예비비	예비비	675,210	예비비	-1,824,790
	합계	102,700,000		

77

2030년,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음성 지역사회의 비전 함께 그리기

공통 질문

1. 2025년 현재, 음성지역 일터에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1-1. 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2.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누구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3. 센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 2030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노동인권이 실현되는 음성지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2-1. 이를 위해 센터가 꼭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센터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2-2. 변화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관

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19년 9월 19일
개정 2023년 2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음성노동인권센터'(줄여서 '노동인권센터')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음성 지역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산업단지 및 기업체들이 조성되면서 노동인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상담, 지원할 기관이 전무하였던 탓에 노동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노동인권센터는 음성과 그 인근 지역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법률지원 그 밖에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노동인권센터는 설립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노동인권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벌인다.

1. 상담 및 노동법률 지원
2. 연구.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발표
3.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문화 활동
4.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
5.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지원
6. 노동행정기관의 행정 감시 활동
7. 회원 증대 및 회원 참여를 위한 활동
8.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연대 활동
9.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

제5조(주소)

노동인권센터의 주된 사무소를 음성 지역에 둔다.

79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된다.
- ② 이 정관에 의하여 각 직에 선임 또는 위촉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③ 회원은 운영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 1(회원의 구분)

- ① 회원의 종류는 가입신청서에 의한다.
- ② 가입신청서에 운영회원으로 선택한 사람과 단체는 운영회원으로, 후원회원으로 선택한 사람과 단체는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노동인권센터의 소식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노동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운영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이 운영규정이 정한 선거·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과 권리의 제한)

- 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회비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을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③ 권리를 제한받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총회의 개최)

- ① 노동인권센터는 매년 1회 회원정기총회를 연다.
- ② 노동인권센터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2분의 1 또는 운영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열도록 요구할 경우 즉시 회원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③ 총회는 열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다룰 안건과 개최 날짜, 장소, 시각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운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회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운영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센터의 해산과 관련한 사항은 전체 운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다른 운영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